

40일의
거룩한 고백문

신부고백문

주님께 고백하는 신부들의 고백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목 차

C O N T E N T S

- 제1일 신부의 부르심, 거룩한 여정의 시작
- 제2일 첫사랑의 회복, 신랑을 향한 설렘
- 제3일 세상을 끊고 주님께로, 거룩한 분리
- 제4일 낮은 마음,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림
- 제5일 말씀의 등불, 신랑의 음성을 청종함
- 제6일 갈급함의 은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
- 제7일 보혈의 세마포, 정결한 신부의 예복
- 제8일 침묵의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림
- 제9일 마음의 할례, 육신의 소욕을 버림
- 제10일 신뢰의 고백,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
- 제11일 온전한 순종, 나의 뜻을 꺾는 기쁨
- 제12일 거룩한 두려움, 주님을 경외하는 삶
- 제13일 사랑의 연합, 주님과 하나 됨
- 제14일 기쁨의 향기, 주님을 미소 짓게 함
- 제15일 섬김의 자세, 낮아짐으로 빛나는 영광
- 제16일 인내의 연단, 소망 중에 기다림

제17일 온유한 심령, 주님의 성품을 닮음
제18일 화평의 도구, 주님의 평강을 전함
제19일 찬양의 고백, 내 영혼의 노래
제20일 범사의 감사, 광야를 에덴으로 바꿈
제21일 자아의 죽음, 주님만 사시는 삶
제22일 영적 분별력, 미혹을 이기는 안목
제23일 치유와 회복, 상처를 별(Star)로 바꿈
제24일 담대한 증인, 신랑의 이름을 높임
제25일 동행의 기쁨, 24시간 주님과 걷기
제26일 거룩한 낭비, 주님께만 쏟는 옥합
제27일 기도의 권세,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제28일 겸손의 장식,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
제29일 소망의 항구, 천국 시민의 위엄
제30일 정결의 완성, 흠 없는 신부로의 변화
제31일 십자가의 연합,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
제32일 보혈의 신비, 생명의 값을 기억함
제33일 겿세마네의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34일 침묵의 인내, 비난 앞에서의 품격
제35일 온전한 헌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것
제36일 버려짐의 은혜, 나의 고독을 안으신 주님
제37일 다 이루었다, 완전한 승리의 선포
제38일 무덤의 침묵, 부활을 예비하는 믿음
제39일 부활의 아침, 사망을 이긴 생명의 주님
제40일 마라나타,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함

들어가는 말

40일,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은혜의 여정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금욕하는 절기를 넘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사랑을 심령 깊이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신부의 고백 - 40일의 거룩한 고백문'을 통해 매일 새벽, 신랑 되신 주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밀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고귀한 예물을 지불하여 우리를 사셨고, 이제는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단장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이 40일간의 새벽 제단은 우리 영혼의 세마포를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는 '단장의 시간'입니다. 매일 선포되는 '신부의 고백'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며, 마음의 서약이며, 삶의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고백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정결함으로 서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죄로 얼룩진 옷을 벗고,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정결한 처녀로 신랑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간절함으로 구하십시오. 신랑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매일 아침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갈망하며 마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셋째, 삶의 고백으로 증명하십시오. 새벽의 고백이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실제적인 신부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신랑의 손을 놓지 않고 40일을 걸어간 끝에, 우리는 부활의 아침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이 제단을 이끄시는 목사님의 사역 위에 신랑 되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26년 2월 사순절 하루 전 날

데이빗리 목사



제1일:
첫사랑의 회복, 신부의 자리에 서다



제1일:

첫사랑의 회복, 신부의 자리에 서다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
이 거룩한 사순절의 첫새벽에 나를 깨워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 묻혀 살던 나를, 오직 주님만
이 계신 이 은밀한 지성소로 초대해 주신 그 은혜
가 너무나 큼니다.

주님,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
습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 맹세했던 입술
로 세상의 헛된 것을 탐했고, 주님께만 고정되어
야 할 나의 시선은 눈앞의 화려한 유혹에 빼앗겨
갈 지를 몰랐습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한 채, 나는 마치 사랑 없는 자처럼, 소망 없
는 자처럼 방황하며 살아왔음을 눈물로 고백합니
다.

그러나 주님,

이 비천한 신부를 주님께서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
으셨음을 믿습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오늘 아침 나의 마
음에 들려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다시 일어납니다. 나
의 낡은 생각과 세속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신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합
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 나
의 영혼을 덮습니다.

그 보혈로 나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 주시고, 오직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일의 여정 동안, 나는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신랑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알
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아픔이 무
엇인지, 주님이 나를 향해 품으신 그 완전한 계획
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아의 고집과 교만을

꺾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
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신랑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나누는 달콤한 신혼의 하
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주님께 향기가 되고, 나의 발걸
음 하나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
시고,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40일의 이 신부수업이 끝나는 날, 내가 더욱 주님
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신부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나의 신랑,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일:
보혈의 세례, 정결한 예복을 입음



제2일:

보혈의 세례, 정결한 예복을 입음

나의 거룩한 신랑 되신 주님,
사순절의 둘째 날 새벽, 다시 한번 주의 보좌 앞
에 겸허히 엎드립니다.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으나, 주님의 그 찬란한 빛 앞에
선 나의 모습은 여전히 부끄럽고 초라하기만 합
니다.

세상의 먼지와 욕심으로 얼룩진 나의 영혼을 주
님의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 주옵소서.

주님,

신부인 내가 입어야 할 진정한 옷은 세상이 부러
워하는 화려한 비단옷이나 명예의 외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모해야 할 유일한 예복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씻어 눈보다 더 희게 된 거룩한 세마포뿐입
니다.

주님,

나의 교만과 시기, 분노와 탐욕으로 더러워진 이
마음의 옷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오늘 나의 심령 골수까지 깊숙이 흘러 들어오기를 간구합니다.

내 영혼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죄의 찌꺼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지울 수 없었던 그 깊은 얼룩들을 오직 주의 보혈로 태우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깨끗할 수 없는 존재이며, 주님의 공로 없이는 단 일 초도 신부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도사린 옛 사람의 본성을 십자가 아래 묻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내가 입은 이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나를 흔들고 불의와 타협하라고 속삭일 때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신랑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엄중하면서도 사랑 가득한 명령을 가슴에 새기며,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도 신부의 품격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마음을 쏟기보다, 주님과 마주하는 내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이 새벽의 고백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의 정결함을 더 귀히 여길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혈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신부로 세워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일:

귀를 여심, 신랑의 음성을 듣는 기쁨



제3일:

귀를 여심, 신라의 음성을 듣는 기쁨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새벽에도 나를 깨우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지성소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부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과 위로는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신라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하루를 돌아보니 나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보다는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사람들의 차가운 평가에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였음을 회개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는 육신의 소리와 세상이 주는 불안한 소문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느라, 정작 나를 향해 노래하시는 주님의 사랑 노래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를 통해, 그리고 내면에서 속삭이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확신에 찬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단번에 몰아내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가장 달콤한 선율이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춤추며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신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지표와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이 주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주저 없이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순종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은 오직 신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의 헛된 유혹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직 주님께만 채널을 맞추는 영적 민감함을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저녁에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음성 덕분에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목자이시며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4일:
시선의 고정, 주님만 바라보는 눈



제4일:

시선의 고정, 주님만 바라보는 눈

나의 영원한 빛이신 주님,
오늘 이 새벽 나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
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장식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오직 자기 신랑에게만 고정된 일편단심의
눈동자에 있음을 배웁니다.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시선을 유혹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고, 더 많은 것을 소
유해야 한다고, 남들보다 더 화려해져야 한다고
속삭이며 나의 눈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
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에 마음이 뺏겨 정작 영
원한 실재이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나의 영적 맹
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미혹의 시대에 나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시켜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 나타난 그 완전한 사랑과 공의, 그리

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을 바라볼 때, 세상의 유혹은 그 빛을 잃고 안개처럼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눈에 식워진 세속의 가치관과 성공의 비늘을 벗겨 주시고, 주님이 보시는 곳을 나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가난한 심령들을 향해 내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사모하며 바라보는 신부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하신 시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놓은 수많은 덫과 그물이 내 발 앞에 있을 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 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 환경의 파도를 바라볼 때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믿음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눈이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

소서. 탐욕의 눈, 시기의 눈, 정욕의 눈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담은 따뜻하고 거룩한 시선
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도 나를 인자한
눈으로 바라봐 주심을 믿으며, 그 눈 맞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지켜보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
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
립니다. 아멘.



제5일:
향기로운 제물, 삶으로 드리는 고백



제5일:

향기로운 제물, 삶으로 드리는 고백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하루 나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
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부는 단순히 신랑 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신
랑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가문을 향기
롭게 가꾸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입술로는 거창하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향기가 아닌 나
의 악취를 풍기며 살았던 위선적인 모습을 회개
합니다.

나의 이기심과 모난 성격,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
에서 가졌던 불결한 생각들이 주님의 거룩한 이
름을 가렸음을 눈물로 고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나의 모든 행실과 표정, 그리고 말 한
마디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거칠고 사나운 성품을 성령의 불로 다듬어
주시고,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친절과
공훈이 나라는 통로를 통해 전달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나의 선행을 보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그
리스도의 편지가 세상 속에 널리 읽혀지게 하옵
소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억지 봉사가 아니라, 주
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헌신
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옵소
서.

내 자아가 살아 움직여 주님의 향기를 가로막지
않도록 나를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비로소 그리스
도의 향기는 진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주님이 누구신지 궁금
해하며, 나는 오직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의 영광만
을 높여 드리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친절 하나가 실족한 영혼을 일으키고,
나의 진실한 위로 한마디가 죽어가는 심령을 살
리는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지성소에서 받은 이 은혜를 세상이라는 제단 위에 쏟아붓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거창한 희생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실히 행하겠습니다.

저녁에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때, 주님께 드릴 향기로운 열매가 가득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유일한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제6일:
연합의 신비, 주님 안에 거함



제6일:

연합의 신비, 주님 안에 거함

포도나무이신 나의 주님,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이며, 주님과 영원히 연합된 거룩한 신부임을 이 새벽에 다시 선포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안에 거하고 신부가 신랑의 품 안에 거하는 이 신비로운 연합이야말로 구속사의 정점이자 내 영혼이 누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날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했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을 쌓고, 내 자아의 고집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가로막았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성령의 불로 그 모든 장애물을 태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실제적인 연합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모든 사소한 순간마다 "신랑 되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묻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동자에 맺히는 깊은 영적 일체감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애통이 되는 그 깊은 사랑의 사قم 속으로 나를 더 깊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나 또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철저히 인정하며 주님께만 찰떡 달라붙어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연합은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아래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설령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 지라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낙원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혼자 힘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험덕이던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전능하신 신량의 든든한 팔에 내 모든 염려를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새 힘이 내 영혼에서 샘물 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주님의 성품이 배어나오게 하시고, 내 인격의 열매를 통해 주님과 연합된 자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발붙일 틈이 없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녁에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 "주님과 하나 되어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7일:
광야의 시험, 끝까지 지키는 정절



제7일:

광야의 시험, 끝까지 지키는 정절

나의 견고한 요새이신 주님,
때로 내 삶에 불어오는 거친 풍랑과 메마른 광야
의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나의 정절이 결코
변치 않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결핍 앞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의 우상을 다시 찾았던
그 뼈아픈 실수를 나는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더
디게 느껴지는 그 어두운 밤일수록 신랑 되신 주
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굳건한 신뢰
를 주옵소서.

신부의 참된 가치는 잔잔한 바다 위가 아니라 거
센 폭풍우 속에서 주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진실함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나의 약점을 파고들며 주
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의 수단과 방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를 미혹합니다.

“정말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난을 주
시겠느냐”는 사단의 거짓 속삭임에 내 마음을 배

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방패 삼아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광야의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정금 같은 신부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훈련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광야는 신랑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은혜의 장소임을 깨닫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리시는 주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는 신혼의 장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결핍이 오히려 주님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요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의 정절이 시련을 통과할수록 더욱 빛나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한 나의 일편단심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

소서.

오늘 하루, 내 앞에 어떤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신랑께서 이미 이 모든 길을 앞서 가시며 나를 위해 승리를 예비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주님의 크신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신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나의 한숨이 변하여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8일:
언어의 단장, 은혜로운 말의 신부



제8일:

언어의 단장, 은혜로운 말의 신부

나의 지혜이신 주님,

오늘 이 새벽 나의 입술을 주님의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신부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화장이나 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롭고 선한 말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지난 시간 나의 입술은 어떠했습니까?

신랑을 찬양하고 성도를 격려해야 할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뱉어냈고,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며 내 안의 독을 쏟아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신부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거칠고 추한 언어의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지혜롭고 덕스러운 말로 나의 입술을 단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내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혈기와 판단의 언어를 차

단해 주시고, 오직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는 치료의 광선 같은 말만
담게 하옵소서.

비판보다는 이해를, 정죄보다는 용서를, 미움보
다는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과 나누는 기도가
형식적인 중언부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의 밀어가 되기를 소망합
니다.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 영광을 선포하는 증거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
서.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죽이는 독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가족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이
웃에게 건네는 짧은 말 한마디가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말로 어둠을 불러들이지 않고, 긍정적
이고 소망 넘치는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
를 이 땅에 선포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내 혀의 모든 권세를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사용하게 하시고, 나의 언어를 통해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주옵소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말은 아끼고, 주님의 사랑
을 전하기 위한 말에는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보석과
같은 언어들이 되어, 내 주변을 밝히고 주님의 마
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
옵소서.

나의 노래이시며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
멘.



제9일:
첫사랑의 회복, 뜨거운 열정의 신부



제9일:

첫사랑의 회복, 뜨거운 열정의 신부

나의 영원한 첫사랑 되신 주님,
오늘 이 새벽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가슴
벅찬 떨림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
합니다.

주님,

언제부턴가 나의 신앙생활이 익숙한 형식이 되어
버렸고, 예배는 메마른 의무가 되었으며, 기도는
공허한 독백처럼 느껴졌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
다.

신랑을 향한 뜨거운 갈망은 사라지고, 그저 매일
의 일상을 버텨내는 데 급급했던 나의 냉랭해진
가슴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부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질병은 신랑에 대한
무관심과 식어버린 사랑임을 깨닫고, 이 시간 다
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
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다시 지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즐거움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고백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이 고단한 숙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설레는 데이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던 그 순수한 열정, 주님의 말씀 한 구절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오늘 나의 영혼에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와 헌신을 기꺼이 드리는 열정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하시는 주님의 준엄한 책망 앞에 나를 비추어 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회개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기까지 뜨겁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정작 주님께 내 마음의 한 조각만을 드리려 했던 이 기심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며, 나의 유일한 사랑

의 대상임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의무감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봉사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따르는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눈을 맞추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원
합니다.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신랑
되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 드리는 뜨거운 신
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0일:
기름 준비, 깨어 기다리는 신부



제10일:

기름 준비, 깨어 기다리는 신부

다시 오실 나의 영광스러운 신랑 주님,
주님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영
적으로 깨어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를 데
리러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나는 지혜로운 다
섯 처녀처럼 내 영혼의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넉
넉히 채우며 기다리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잠에 취해 영적인 혼미함 속에 빠지지 않
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신랑의 오심을 고대하는 깨어 있는 영
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일의 일상 속
에서 주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거룩한 삶의 열매
를 맺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이 마치 내 생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겠습니다.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신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

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문을 두드리시더라도 기쁨으로 달려가 영접할 준비가 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이 들릴 때, 당황하여 기름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복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다림은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설렘과 소망이 가득한 기다림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천국 잔치를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끊어져도 주님의 약속은 영원함을 믿기에, 나는 오늘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늘 새롭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 깨어 기도하는 무릎으로 승리하게 하
옵소서.

내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기름, 기
도의 기름, 사랑의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하
옵소서.

나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
가 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영혼들도 이 소망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신
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오
늘 하루를 가장 찬란한 기다림으로 채워가겠습니
다.

나의 왕,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1일:
겸손의 허리띠, 낮아짐으로 만나는 신랑



제11일:

겸손의 허리띠, 낮아짐으로 만나는 신랑

나의 겸손한 왕이신 주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낮아짐의 길을
묵상하며 신부의 자리에 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지극한 겸손을 기억합니다.

신부인 나의 아름다움은 교만한 머리 장식에 있
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져 이웃의 발을 씻
기는 겸손의 허리띠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는 여전히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욕망과
대접받으려는 교만이 살아 숨 쉽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남의 실수를 지적하
며 우월감을 느끼려 했던 나의 추한 마음을 십자
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
서.

주님,

오늘 하루 나를 철저히 낮추어 주님의 성품을 닮
게 하옵소서.

신랑이신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듯이, 나 또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진실한 겸손을 갖게 하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나의 선행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보다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겸손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신뢰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내 자아의 목소리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서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부추겨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고 속삭이지만, 나는 신랑 되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비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게 하옵소서.

내가 낮아질 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며, 내가 비워질 때 비로소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교만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
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셨듯이, 나 또한
신부의 품격을 지키며 묵묵히 사랑과 섬김의 길
을 걸겠습니다.

나의 낮아짐이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겸
손의 여정이 내 생애 가장 고귀한 신부수업이 되
게 하옵소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사 종의 형체로 오신 나의 신
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2일:

순종의 향유 옥합,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



제12일:

순종의 향유 옥합,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

나의 보화이신 주님,

오늘 이 새벽 나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붓는 심정으로 나아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부었을 때,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나의 고백과 삶이 주님께 향기로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의 소중한 것은 아까워하며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습니까?

내 시간과 물질, 내 재능과 열정의 일부분만을 드리고서 그것이 전부인 양 생색냈던 나의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신부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전체를 아낌없이 쏟아부으셨듯이, 나 또한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계획을 기꺼이 깨뜨려 순종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나의 욕망은 나의 자존심이며, 나의 고집이며,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보장들입니다.

이것들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릴 때 비로소 내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은 신부가 신랑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임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명령이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랑 되신 주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신뢰하며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순종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끼는 것을 내어놓을 때 느끼는 상실감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영적 충만함이 내 영혼에 더 크게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라고 하시는 세밀한 음성에게 즉각 반응하게 하옵소서.

미루지 않는 순종, 기뻐하는 순종, 끝까지 가는 순종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나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께 드려진 그 향유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소 앞에서조차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었듯이, 나의 작은 순종이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게 하옵소서.

나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3일:
성령의 인치심, 주님의 소유 된 신부



제13일:

성령의 인치심, 주님의 소유 된 신부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새벽 나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사단의 종노릇 하는 자도 아니며,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소유 된 거룩한 신부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잊어버리고 방황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인정과 평판에 목매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며, 마치 주님 없는 고아처럼 살았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 값으로 나를 사셨음을, 그리고 내 영혼 위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셨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이양했음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표와 우선순위, 내 가정과 일터,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움직임이 주님의 소유 된 자
다운 위엄과 품격을 갖추게 하옵소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치관에 함
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신부다”라는 거룩한 자부심이 내 삶
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
하게 믿음을 지키는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 치셨으니, 세
상의 어떤 세력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또한 거룩한 구별됨을 뜻합니
다.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신부
의 순결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소유 된 증거들이 나타
나게 하옵소서.

나의 언어에서, 나의 선택에서, 나의 가치관에서
“이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육신의 정욕

을 거스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장이 내 이마에, 내 가슴에 새겨져 있음을 믿으며, 어둠의 권세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소유로 사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임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신랑의 보호 아래 있는 신부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뒤에는 언제나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주님의 소유 된 기쁨만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피 값으로 사신 나의 주,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4일:
인내의 열매,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림



제14일:

인내의 열매,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림

나의 소망이신 주님,

사순절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해감을 느낍니다.

신부는 기다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신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신부에게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은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인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의 문제들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은 쉽게 낙심하고 지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라고 부르짖으며 인내의 한계에 부딪혔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농부의 인내를 주옵소서.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며 열매 맺을 날을 소망

하는 그 진실한 기다림이 내 영혼에 가득하게 하
옵소서.

주님의 오심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참
고 계시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 내 신앙의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내 영혼의 세마포는 더욱 정결해
질 줄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
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내
안의 불안함까지도 인내의 재료로 삼아 나를 성
숙한 신부로 빚어 주옵소서.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
망을 품고 준비하는 과정임을 기억합니다.

신랑이 언제 돌아오든 “주님, 어서 오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
록 내 삶을 정돈하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신랑을 잊어버리는 어리석
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의 쓴 뿌리가 아닌
인내의 단 열매를 맺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경한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인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수준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조금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계획보다 완벽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찬란한 새벽이 오듯이, 내 삶의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할 봄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미소 지으며 신부의 길을 걸겠습니다.

나의 인내의 근거가 되시며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5일:
성결의 삶, 세상과 구별된 신부



제15일:

성결의 삶, 세상과 구별된 신부

나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요청 앞에 나를 비추어 봅니다.

신부의 가장 큰 매력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결함을 닮은 깨끗한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세상의 음란함과 탐욕에 오염되었던 자였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핑계 뒤에 숨어 거룩의 기준을 낮추고, 신부의 정절을 가볍게 여겼던 나의 불경건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의 거룩한 불로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며 코람데오(Coram Deo)의 삶을 살

게 하옵소서.

나의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성결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적극적인 사랑의 선택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매 순간 성령의 생수로 나를 씻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거하시는 정결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거룩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비웃지만, 신부에게 거룩은 최고의 장식이며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거룩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며, 내가 정결할 때 비로소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유혹의 손길이 뻗어올 때마다 "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다"라고 선포하며 단호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가라앉히듯, 작은 죄 하나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경계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거룩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아닌 소망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억지로 꾸며낸 거룩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안과 순결함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신 약속대로, 오늘 하루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거룩함의 근원이시며 나를 성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6일:
신뢰의 믿음, 신랑의 손을 놓지 않음



제16일:

신뢰의 믿음, 신랑의 손을 놓지 않음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거친 파도가 치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오늘도 신
랑 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교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
니라, 폭풍 속에서도 신랑 되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며 안심하는 것임을 고백합
니다.

주님,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려 했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문제가 산처럼 커 보일 때 주님은 작게 보
였고, 내 불안의 소리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덮
어버렸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랑 되신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끝까지 신
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약속이 오늘 나의 삶에 실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일지라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감정의 기복에 속지 않고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닻으로 삼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육신의 눈으로는 절망을 보아도 영의 눈으로는 소망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장애물 뒤에 숨어 계신 주님의 미소를 발견하게 하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신부가 신랑의 경제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신랑의 됴됨이를 믿고 인생을 맡기듯, 나도 주님의 신실하심 하나만을 믿고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며 평강을 되찾

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일 하나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행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짐을 지려 하지 않고, 신랑의 든든한 어깨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오늘 웃을 수 있고, 오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7일:

지혜로운 단장, 속사람을 가꾸는 신부



제17일:

지혜로운 단장, 속사람을 가꾸는 신부

나의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 새벽 나의 외모보다 나의 속사람을 가꾸는
지혜로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세상은 썩어질 육신을 치장하고 겉모습을 화려
하게 가꾸는 데 온 힘을 쏟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면의 정결함과 온유한 심령임을 깨닫습니
다.

주님,
지난날 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며
겉가죽을 단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썼으면서,
정작 주님과 마주하는 내 영혼의 상태는 방치해
두지는 않았습니까?
시기와 분노, 탐심과 음란함으로 얼룩진 내면을
화려한 종교적 행위로 덮으려 했던 나의 어리석
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썩지 아니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단장을 하

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석 삼아 내 인격을 아름답게 꾸미게 하옵소서.

신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주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 배어 나올 때 비로소 완성됨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낡아지는 겉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나의 장식이 되고, 주님의 겸손이 나의 옷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신부는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순수한 사랑임을 압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정원을 말씀의 물로 씻고 기도의 향기로 채워 주님께서 언제든 거닐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처소로 가꾸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열납되는 향기

로운 제물이 되도록 내 내면을 정결하게 파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외모를 단장하듯 내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허물을 살피고 고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향기를 풍기는 성숙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아름다움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세상의 헛된 장신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만 옷 입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아름다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8일:
사명의 헌신, 신랑의 소원을 이루는 신부



제18일:

사명의 헌신, 신랑의 소원을 이루는 신부

나의 소망이신 주님,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도 머물기
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부는 신랑과 같은 꿈을 꾸고, 신랑의 소원을 자
신의 소명으로 삼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그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복과 내 안위만을 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통곡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직 내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던 이기적인 신부였음을 고백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시선을 돌려 신랑 되신 주님의 가슴에
맺힌 소원이 무엇인지 묻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심장을 이식하여 주옵소서. 주님
께서 가장 아끼시는 양 한 마리를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그 간절한 열정이 내 안에 불타오르
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주님의 소망을 나누는 사명의 현장이 나의 신부수업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신랑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신부인 나의 가장 큰 보람이며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로 삼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건강까지도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헌신은 억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믿습니다.

신랑을 사랑하기에 신랑이 귀히 여기는 것을 나도 귀히 여기며, 신랑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나도 기쁨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주변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시고, 내가 전해야 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거창한 일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친절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편안한 안식처를 떠나 주님의 발자국이 머

무는 험한 곳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신부가 되
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않
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하옵소서.

내가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
만 높여 드리겠습니다.

사역의 열매보다 주님과와의 동행 그 자체를 더 사
랑하게 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
역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신부야"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9일:
용서의 넓은 품, 주님의 사랑을 닮음



제19일:

용서의 넓은 품, 주님의 사랑을 닮음

나의 자비로우신 주님,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묵상하며 이 새벽을 엽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시고, 비천한 나를 신부로 삼아 주신 그 크신 용서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의 기초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정작 내게 작은 상처를 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남을 향한 나의 심판은 서슬 퍼렇게 날을 세웠던 위선적인 모습을 회개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주님의 넓은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맺힌 원망과 미움의 응어리들을 십자가 앞에 다 풀어 놓습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나를 오해하고 비난했던 사람, 나

의 진심을 왜곡했던 그 모든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용서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입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빛 깊음임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뽑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단비로 내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사 용서와 화해의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신부의 품격은 넓은 포용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날카로운 신부가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을 안아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수치와 죄를 덮어 주셨듯이, 나 또한 이웃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가려주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용서하기 힘든 순간마다 나를 위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를 때 비로소 나는 진정으로 자유해지며, 신랑 되신 주님을 닮은 성숙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의 제

사를 드리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Peacemaker)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용서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미움은 나를 파괴하지만 용서는 나를 살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신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0일:
감사의 제사, 모든 환경 속의 찬양



제20일:

감사의 제사, 모든 환경 속의 찬양

나의 좋으신 주님,

40일 신부수업의 반환점을 도는 이 새벽,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며,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신 신랑 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온 주님의 은총들을 잊어버리고,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보며 불평했던 불효한 신부였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수만 가지 은혜보다 내 눈앞의 작은 불편함에 더 크게 반응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오늘 나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가르쳐 주옵소서.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골짜기를 지

날 때에도, 기도가 즉각 응답될 때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침묵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는 신부가 신랑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쁘고 향기로운 제물임을 믿습니다.

원망은 광야를 만들지만 감사는 광야를 에덴으로 바꿈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 불평의 찌꺼기를 제하시고 오직 감사의 노래만 담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임을 깨닫습니다.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볼 때 평범한 일상이 기적으로 보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선물로 보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숨 쉬는 것, 먹는 것, 걷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신랑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분으로 인해 끊임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담는 그릇임을 믿으며, 오늘 나의 작은 감사가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의 풍성한 복을 끌어당기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감사의 습관을 훈련하겠습니다.

불평할 상황이 오면 즉시 감사의 조건을 찾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의 밝고 환한 감사의 미소가 주변의 어두운 분위기를 바꾸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1일:
자아의 죽음, 주님만 사시는 삶



제21일:

자아의 죽음, 주님만 사시는 삶

나의 주인이신 주님,
사순절의 후반기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를 못 박습니다.

신부의 가장 큰 방해물은 외부의 환경이나 세상
의 유혹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펄펄하게 살
아 움직이며 왕 노릇 하려는 '나'라는 우상임을 이
새벽에 뼈아프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으며, 주님의 완전하신 뜻보다 나의
얕팍한 고집을 관철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고, 내가 낮아져야 주님
이 내 안에서 높아지시는데, 나는 여전히 죽지 않
은 자존심과 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
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사
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실체가 되게 하옵소
서.

주님,

나의 죽음은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며, 내 생각이 멈출 때 비로소 주님의 하늘 지혜가 나를 이끌기 시작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욕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 감정이 요동치고 내 의가 살아나려 할 때마다, 성령의 강권적인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신부는 자기 부인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광채를 발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꺼이 나를 비우고 주님의 충만함으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 오늘 나의 자아를 꺾는 순종을 통해 내 주변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섬기기를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주님 안에

서 잊혀지기를 기뻐하는 성숙한 신부가 되게 하
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공이 되
시고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투명하게 비추
는 거울이 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2일:
영적 분별력, 미혹을 이기는 신부



제22일:

영적 분별력, 미혹을 이기는 신부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

갈수록 어두워지고 혼탁해지는 이 미혹의 시대 속에서 신부 된 나에게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신부의 마음을 신랑으로부터 도둑질하려 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마치 변하지 않는 진리인 양 속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

무엇이 주님의 선하신 뜻인지, 무엇이 나의 육신에서 나온 정욕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나의 영적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일시적인 기분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했고, 세상에서 얻는 가시적인 성공이 주님의 축복인 줄만 알았던 나의 짧은 식견을 이 시간 깨뜨려 주옵소서.

오직 기록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세밀한 조명 하심 아래서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예리한 영적 안목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신부의 귀는 오직 신랑의 음성에만 민감해야 함을 믿습니다.

수많은 여론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정확히 분별해 내는 거룩한 청력을 주옵소서.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하나 속은 비어 있는 세상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좁고 험해 보이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님의 길을 끝까지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분별력은 단순히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길임을 깨달았을 때 즉시 돌아서는 결단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은밀히 스며드는 작은 죄의 씨앗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뿌리 내리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하는 거룩한 거절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겠습니다. 내 가변적인 감정이나 눈앞의 상황에 속지 않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내 인생의 유일한 척도로 삼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

케 해 드리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3일:
치유와 회복, 상처를 별로 바꾸는 사랑



제23일:

치유와 회복, 상처를 별로 바꾸는 사랑

자비로운 치료자 주님,

오늘 새벽 나의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안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아옵니다.

신부로 부름받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아픈 상처와 트라우마에 매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 환경 때문에 생긴 깊은 열등감,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사슬이 되어 나의 영혼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못 자국 난 손으로 나의 찢긴 마음 구석구석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에는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모든 쓴 뿌리를 근원부터 제거하는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기억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안에서 나의 상처(Scar)가 사명(Star)으로 바뀌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겪은 고난과 아픔이 단순히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 주셨듯이, 나도 타인의 마른 눈물을 닦아주는 성숙하고 넉넉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신부에 머물지 않고 치유받은 신부로서, 이제는 주님의 하늘 평강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화평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내 영혼의 모든 빈자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사, 더 이상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인정에 구걸하지 않는 당당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듯이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치유 광선이 내 메마른 육신과 영

혼에 임하여 나를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말씀을 방패 삼아 의지하오니,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받은 자의 밝은 미소와 진심 어린 감사가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 만방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나의 위로자시며 영원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4일:
담대한 증인, 신랑의 이름을 높임



제24일:

담대한 증인, 신랑의 이름을 높임

능력의 주님,

오늘 이 새벽 나에게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부어 주옵소서.

신부는 단순히 신랑 곁에 머무는 존재를 넘어, 신랑의 명예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그동안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주저하며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침묵했고, 내가 손해 볼까 봐 그리스도인임을 숨겼던 비겁한 신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늘 왕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위축된 마음과 두려움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내 말의 지혜나 화술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과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서 있는 나의 가정과 치열한 일터, 그
리고 내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
의 유일한 신랑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삶의 향기
로, 그리고 진실한 언어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
속이 오늘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실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 강인한 신부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
서.

오늘 하루, 세상의 거센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복
음의 깃발을 높이 들겠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
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깊은지를 내 삶
의 작은 태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내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기보다 오직 나를 사랑하
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증거를 통해 한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요 유일한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5일:
동행의 기쁨, 매 순간 주님과 걷기



제25일:

동행의 기쁨, 매 순간 주님과 걷기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항상 함께하시며 내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나의 신랑을 찬양합니다.

신부의 가장 큰 권세는 전능하신 신랑과 24시간 동행하며 그분의 완전한 보호 아래 사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 고민하고, 주님의 강한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막연히 외로워했던 불신앙의 자였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내 멋대로 행동하며 주님을 내 삶의 변두리로 소외시켰던 무례한 신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호흡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동행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과 나누는 달콤한 산책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장소나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처한 모든 평범한 일상의 현장이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설거지하는 시간에도, 복잡한 거리를 운전하는 시간에도, 업무에 집중하는 긴장된 시간에도 내 마음의 중심은 늘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기에 거친 들판도 꽃길이 되고, 주님과 함께 있기에 깊은 밤도 대낮같이 밝음을 영혼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내 곁의 전능하신 신랑과 함께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보폭에 나를 맞추는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기꺼이 멈추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도 주저 없이 가는 순종의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도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내 발길도 닿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기쁨이 세상 그

어떤 낙보다 크다는 것을 내 영혼이 전율하며 실감하게 하시고, 나의 동행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나의 영원한 친구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6일:
거룩한 낭비, 주님께만 집중함



제26일:

거룩한 낭비, 주님께만 집중함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만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나를 보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비웃을지 모르나, 신부인 나에게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룩한 투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그동안 효율성과 세상의 경제 논리에 밀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며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달콤한 데이트를 자꾸만 뒤로 미루고, 세상의 유익을 얻는 일에는 온 힘을 쏟았던 나의 우선순위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오직 사랑에 눈먼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사랑을 '허비'라고 비난했던 가롯 유다의 차가

운 시선이 내 안에도 있었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향해 내 생명과 시간을 기꺼이 낭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기에 세상의 계산법을 초월하는 무모하고 뜨거운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 음성을 경청하는 이 한 시간이 내 인생의 그 어떤 위대한 성취보다 존귀함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향기를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을 위해서는 철저히 아끼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모든 에너지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쏟고, 내 모든 물질을 주님의 소원을 위해 흘려보내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늘 보화

로 영원히 쌓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헌신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순수한 열정이 되게 하시고, 오직 신랑의 기쁨만이 나의 유일한 보상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7일:
기도의 권세, 하늘 문을 여는 신부



제27일:

기도의 권세, 하늘 문을 여는 신부

들으시는 주님,

만왕의 왕이신 신랑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신부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은 신랑의 이름
을 빌려 무엇이든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기도의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이 엄청난 하늘의 권세를 손에 쥐고도 정작
기도하지 않아 영적 가난 속에 허덕였던 자였습
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느라 정
작 전능하신 신랑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교만
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단순히 나의 요구 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통로임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군대를 움

직이는 강력한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신 약속을 붙잡고,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중보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가정 이 살고 교회가 살며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는 신랑과의 은밀한 대화이며 사랑의 가장 깊은 나눔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매 순간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게 하옵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나 작은 신음으로 읊조릴 때나 주님은 내 곁에서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때가 아닐 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랑의 완전한 지혜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를 통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며,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8일:
온유와 겸손, 주님의 성품을 단장함



제28일:

온유와 겸손, 주님의 성품을 단장함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 이 새벽 나의 속사람을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단장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거친 자가 승리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얼마나 자주 내 혈기를 부리며 내 주장을 관철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온유하기보다 날카로웠고, 겸손하기보다 교만하여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의 거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부의 참된 매력은 부드러운 말씨와 낮아지는 마음씨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내 마음 밭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씨앗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강력한 힘임을 믿습니다.

내 안의 거친 감정들을 성령의 통제 아래 두게 하
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품격
있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처럼 잠잠히 하나
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숙함을 주옵소서.

또한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고 내 주변의 낮은 자
들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나를 낮출 때 주님이 비로소 높아지시고, 내가 작
아질 때 주님이 내 삶에서 크게 나타나심을 진심
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칭찬에 교만해지지 않고 비난에 낙심하
지 않는, 오직 주님의 평가에만 만족하는 단단한
내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인격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은은
하게 배어 나오게 하옵소서.

독한 말보다는 덕을 세우는 말을, 날선 시선보다
는 따뜻하고 인자한 눈길을 보내는 신부가 되겠
습니다.

나의 온유함이 누군가의 굳게 닫힌 마음 문을 열
고, 나의 겸손함이 누군가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
로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변화된 성품을 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신부수업에 성실히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원한 모범이 되시는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9일:
소망의 항구, 천국을 꿈꾸는 신부



제29일: 소망의 항구, 천국을 꿈꾸는 신부

영원하신 왕 주님,

이 땅의 나그네 삶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고개를 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부에게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정거장일 뿐, 우리의 진짜 집은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신 아름다운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쏟고,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려 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던 나의 좁은 안목을 넓혀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하고 찬란한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소망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며 오늘을 살게 하는 강력한 엔진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가 나를 덮칠 때마다, 저 멀리 보이는 소망의 항구와 나를 맞으러 나오실 주님의 인자한 미소를 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눈물과 아픔은 잠시뿐이며, 주님 곁에서 누릴 안식은 영원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히 전진하게 하옵소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을 내 영혼의 흔들리지 않는 닻으로 삼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천국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하늘 시민권자다운 위엄과 여유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사소한 이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오늘을 기꺼이 헌신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소망이 주변의 낙심한 자들에게 밝은 빛으로 전염되게 하시고, 나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기다리는 그 나라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게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눌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본향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0일:
정결의 완성,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됨



제30일:

정결의 완성,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됨

거룩하신 주님,

40일 신부수업의 마지막 고개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나의 정결함을 다시 한번 엄격히 점검합니다.

주님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나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죄의 얼룩을 문힌 채 안일하게 서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주님,

신부의 정결함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씻고 기도로 자신을 살피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이루어짐을 깊이 깨닫습니다.

사순절의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더욱 철저히 나를 정결케 하사, 거룩하신 주님과 마주하기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내면 깊은 곳에 교묘히 숨겨진 은밀한 죄들 까지도 성령의 빛으로 다 드러내어 주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세상과 타협했던 작은 여우들을 이 시간 다 잡아내게 하시고, 내 영혼의 순결함을 해치는 모든 세속의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주옵소서.

내가 거룩해지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내 신랑 주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사귀기를 누리기 위함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이 티 없이 맑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도 완전하다 인정받는 흠 없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을 위한 선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늘 신부의 자존심과 정절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나의 거룩함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나의 정결함이 주님의 임재를 강력히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게 하옵소서.

40일의 이 시간이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내 영혼의 본질이 변화되는 실제적인 단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아침,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
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 근신하며 거
룩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1일:
십자가의 연합, 고난에 동참하는 신부



제31일:

십자가의 연합, 고난에 동참하는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되신 주님,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열흘을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 곁으로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나아갑니다.
신부의 사랑은 모든 것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날 때 그 진실함과 견고함이 증명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그동안 주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은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주님이 지신 거친 십자가와 그 쓴 고난의 잔은 외면하려 했던 이기적인 신부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시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나는 멀찍이 떨어져 방관자 처럼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나의 비겁함을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험한 골고다 언덕길을 주님과 손잡고 기꺼이 함께 걷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의 고난은 나를 향한 가장 치열하고 완벽한

사랑의 확증이었음을 믿습니다.

나를 신부 삼기 위해 주님이 치르신 그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내 가슴 깊은 곳에 새기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오는 작은 불편함과 예기치 못한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을 위해 받는 오해와 멸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감수하는 손해들이 거룩한 주님의 흔적(Stigma)이 되어 내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옵소서.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과 가장 깊은 속사랑을 나누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통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안의 정욕과 세상을 향한 탐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못 박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면류관을 탐하기보다 주님의 가시 면류관을 더 고귀하게 여기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겪는 아픔 속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신부 된 나의 가장 큰 영광임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스러운 부활도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충성스럽게 따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찬란히 빛나는 신부의 정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나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2일:
보혈의 신비, 생명의 값을 기억함



제32일:

보혈의 신비, 생명의 값을 기억함

나의 생명이신 주님,

오늘 새벽 나를 신부 삼기 위해 지불하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묵상합니다.

구속사의 모든 페이지가 주님의 붉은 보혈로 적셔져 있음을, 그리고 나의 구원과 신분 회복이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희생의 결과임을 엄숙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얼마나 자주 나의 존재 가치를 세상의 알팍한 잣대로 평가하며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 하나를 사기 위해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하나뿐인 생명을 기꺼이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짜리 인생이며, 거룩한 보혈로 인쳐진 가장 존귀한 신부임을 이 아침에 다시금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씻는 일회성

사건에 그치지 않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공급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 영혼에 도도히 흐르는 보혈의 능력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단번에 물리치고, 나를 묶고 있는 질병과 저주의 모든 사슬을 끊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단이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며 정죄할 때마다 "나의 신랑이 피로 나를 정결케 사셨다!" 라고 당당히 외치게 하옵소서.

보혈로 씻겨진 나의 깨끗한 세마포를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으로 다시는 더럽히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내 주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의 보혈의 관점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품고, 그들에게도 이 생명의 보혈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나의 평범한 삶이 보혈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룩한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피 값으로 사서 영원한 신부 삼아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
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3일:
겻세마네의 기도, 내 뜻을 꺾는 순종



제33일:

겻세마네의 기도, 내 뜻을 꺾는 순종

고난받으시는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치열하게 기도하셨던 겻세마네의 그 처절한 순종 앞에 오늘 나를 비추어 봅니다.

주님은 육신의 극한 고통과 다가올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주님,

나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뜻을 관철하려 고집을 피웠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오해했고, 내 계획이 내 생각대로 틀어질 때마다 주님을 원망했던 미성숙한 신부였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나도 주님처럼 나의 모든 고집과 자아를 겻세마네의 거룩한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진정한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하기 싫은 것까지도 주님의 뜻이
기에 기꺼이 수용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신랑 되신 주님의 완전하
신 지혜를 신뢰하며 묵묵히 그 잔을 마시는 순종
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꺾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
대한 역사가 시작되며, 나의 진심 어린 "예"라는
고백을 통해 하늘의 뜻이 나의 삶과 이 땅에 이루
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 때마다 겿세마네의 옆드린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순종은 신랑을 향한 신부의 최고의 사랑 표현임
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
를 온전히 복종시키며,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
이 능력이라 말하지만, 신부인 나는 주님 앞에 철
저히 항복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능력임을 선포
합니다.

오늘 나의 작은 순종 하나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

케 해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4일:

침묵의 인내, 비난 앞에 선 신부의 품격제



34일:

침묵의 인내, 비난 앞에 선 신부의 품격

침묵하시는 주님,

온갖 억울한 모욕과 거짓 증언 앞에서조차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거룩한 침묵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단번에 멸하실 수 있었으나, 구속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수치와 억울함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주님,

나는 주변의 작은 오해만 받아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날카롭고 독한 말들을 쏟아냈던 자였습니다.

나 자신을 방어하느라 정작 주님의 영광을 가렸고, 내 자존심을 지키느라 신부의 거룩한 품격을 잃어버렸던 나의 얇은 혈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주님을 닮은 거룩한 침묵의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변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을 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 원통함을 사람이 아닌 주님께만 쏟아놓는 성숙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결백을 온전히 증명하시는 분은 오직 공의로우신 주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판단의 권리를 주님께 온전히 이양하겠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올 때 그것을 악으로 맞아치는 대신, 주님의 넓은 십자가 뒤로 숨어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엄 있는 승리의 태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입술의 문을 철저히 다스려 주옵소서.

남을 정죄하는 말, 날선 반박의 말, 독한 감정의 표현들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완전히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온유함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지라도 신랑 되신 주님의 평강의 품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는 품격 있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나의 침묵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인내를 통해 원수들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는 역전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묵묵히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신 나의 왕,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5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헌신



제35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헌신

나의 전부이신 주님,

가시 면류관에 찢리신 머리와 거친 대못에 박힌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찢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옆구리까지 주님은 신부인 나를 위해 온몸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어느 한 부분도 나를 위해 내어주지 않은 곳이 없음을 기억하며, 이 새벽 나도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헌신하기로 엄숙히 결단합니다.

주님,

나는 그동안 내 삶의 극히 일부분만을 주님께 헌신 드리고는 대단한 헌신을 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내 시간의 자투리, 내 물질의 쓰고 남은 것, 내 감정의 찌꺼기만을 주님께 바치며 신부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나의 인색함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머리는 오직 주님의 뜻만을 묵상하고, 나의 눈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향하며, 나의 입술은 주님의
크신 은혜만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의 두 손은 주님의 이름으로 소외된 이웃을 섬
기고, 나의 두 발은 복음을 들고 주님이 가라 하
시는 험한 곳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듯이,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생명과 에너지를 아낌없
이 쏟아붓는 사랑에 눈먼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헌신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
수한 사랑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헌신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가장 큰 기쁨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은
주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것은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은 다 나의 것이니이다"라는 연합의 고백이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실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 나를 남겨두지 않고, 오직 신
랑 되신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나를 온전히 불태우
는 향기로운 화목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6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려짐의 은혜



제36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려짐의 은혜

고뇌하시는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던 주님의 그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을 묵상합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려지셨던 그 고통은, 본래 죄인인 내가 영원히 당해야 할 심판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대신 버려지심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받아들여졌고, 주님이 외면당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 앞에 내 영혼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버려짐이 나의 영원한 소속감이 되었음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가며 때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될 때, 십자가에서 홀로 극한의 고독을

견디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기 위해 친히 버려짐의 길을 택하셨음을 확신하기에,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거절과 냉대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어도,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뚜렷이 새기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사람들의 가변적인 평가가 아닌, 나를 위해 버려지신 주님의 그 완벽한 사랑 위에 굳건히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거절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깊은 고독을 안아주셨듯이, 나도 외로운 자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존귀한 신부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독을 견디신 주님의 은혜를 만방에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

는 신실하신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7일: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포



제37일: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포

승리하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외치셨던 “
다 이루었다”는 그 위대한 선언이 오늘 나의 영혼
에 천둥처럼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마지막 절규가 아니라, 인류 구
원의 대업을 완벽히 완성하신 왕의 위엄 있는 승
전고였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가를 주
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내가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구속의
은혜가 신부인 나에게 거저 주어졌음을 감격으로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애쓰
거나, 내 부족함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흔들었던
나의 율법주의적인 모든 태도를 십자가 아래 깊
이 묻습니다.

주님,

주님이 다 이루셨기에 나는 오늘 어떤 상황에서

도 평안합니다.

나의 고질적인 연약함도,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죄도, 사단의 끊임없는 참소도 주님의 "다 이루었다"는 선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신 주님의 권세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늘 군사처럼,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신부의 기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내 삶의 꼬인 문제들과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하는 강인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평범한 삶이 주님의 위대한 성취를 기념하는 거룩한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낡은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늘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실패와 절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소망의 밝은 빛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림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그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
서.

나의 영원한 승리요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8일:
무덤의 침묵,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



제38일:

무덤의 침묵,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

잠잠히 기다리시는 주님,
십자가의 극심한 수난이 끝나고 차가운 무덤 속
에서 침묵하시던 그 신비로운 시간을 묵상합니
다.

제자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시간
이었고 원수들에게는 승리의 시간처럼 보였으나,
사실 그 시간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 거룩한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무덤처럼 캄캄하고 아무런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토요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은 멈
춘 것 같은 그 침묵의 때에, 신부인 내가 가져야
할 유일한 태도는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
리는 견고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무덤의 긴 침묵을 견디는 단단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 육신의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 쉬
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옵소
서.

어둠이 짙을수록 찬란한 새벽이 가까웠음을 기억
하며, 절망의 무덤 문 앞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
는 신뢰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부활의 기적
을 위한 거룩한 배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앞지르려 하지 않
고,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의 단장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내 삶의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도 부활의 아침을 꿈꾸며 미소 짓겠습니다.

무덤의 거대한 돌문이 굴러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침묵의 시간을 간절한 기도
로 채우겠습니다.

사망 권세가 주님을 무덤에 영원히 가두어 둘 수
없었듯이,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나를 절망의 무
덤에 가두어 둘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곧 밝아올 부활의 광명을 사모하며, 오늘도 거룩
한 설렘으로 기다림의 길을 묵묵히 걸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9일:
부활의 아침, 사망을 이긴 신랑



제39일:

부활의 아침, 사망을 이긴 신랑

부활하신 나의 왕, 나의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열고 당당히 나오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며,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임을 이 아침에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신부인 나에게도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슬픔의 눈물을 닦고 부활의 축제 의복으로 갈아입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강력한 능력이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죽어 있는 영역에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꺾였던 소망이 다시금 싹트게 하시며, 깨어

지고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 처럼, 나도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주님의 부활을 만방에 알리는 뜨거운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복된 소식이 내 삶의 가장 큰 활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부활 신앙의 전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부활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라는 무덤에 머물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영원히 승리하신 나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40일:
마라나타,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림



제40일:

마라나타,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림

나의 영원한 연인, 만왕의 왕이신 주님!

사순절 40일의 이 거룩한 신부수업을 마무리하며, 이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고개를 높이 듭니다.

주님은 부활하사 승천하시며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신부인 나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이며 나의 평생을 지탱할 소망입니다.

40일간의 이 집중적인 여정은 끝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날 그날까지 계속될 거룩한 행진의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의 안락한 삶에 취해 신랑의 오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 아침 "주님, 혹시 오늘 오십니까?"라고 묻는 설렘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나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상급은 오직 주님의 얼굴

을 직접 뵙는 것이며, 나의 영원한 안식처는 오직 주님의 따뜻한 품 안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기쁨을 넉넉히 준비하여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문을 두드리시더라도 기쁨으로 달려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늘 정결하게 단장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결코 지루함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구름 타고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그때에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다"라고 안아주실 주님의 품을 사모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 그날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신부의 품격을 지키며 당당히 승리하겠습니다.

40일간 한결같은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영원한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신부의 고백

초판발행 2026. 2. 16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 신학교

결심했으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점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로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로 개척하고 싶은 분

점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회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